

뻘뻘 선생님이 들려주는 티베트 이야기

카락 뻘뻘 선생님은 티베트 공연예술학교를 졸업하시고 TCV학교에서 8년간 티베트 전통음악 교사 생활을 하셨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한국전통음악 작곡과를 졸업하시고, 지금은 사회적기업 노리단 안의 노래단에서 음악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리 티베트는요

티베트 사람들은 나라 이름을 '뵈' (bhoe)라고 발음을 합니다. 중국으로는 '시짱'이라고 발음합니다. 토번족이라는 것에서 유래해 중국식으로 티베트라고 이름을 붙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티베트는 고산지역이기 때문에 티베트에 살고 있는 30~40%가 유목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티베트는 불교국가입니다. 불교문화가 강해 옛날 티베트에서는 각 가정에 한 사람은 꼭 스님을 해야 한다고 믿었지만 요새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티베트의 문화를 이해하려면 달라이라마가 쓴 '관용'이라는 책을 읽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티베트는 현재 중국의 자치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티베트 사람들은 세계의 여러 곳에 흩어져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각지에서 티베트의 전통을 지키며 티베트의 독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티베트 사람은

티베트에서는 종교적 이유 때문에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가끔 고산지역에 살면서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고기를 먹는 경우도 있지만, 고기는 보통 금기시합니다. 또 티베트사람은 작은 벌레도 죽이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전생을 믿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하면 전생의 자신의 엄마가 현세에 작은 벌레로 환생했을 수도 있다고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에도 모기와 같은 곤충이 많지만 모기를 죽이지 않고, 다만 모기를 쫓는 방법을 쓰지요. 모기가 가까이 오지 않게 몸에 크림을 바르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하고요. 모기장을 치는 등 여러 방법을 찾지만 절대 죽이지는 않습니다.

티베트사람들은 티베트말로 '팅야'라고 발음되는 염주를 항상 지니고 있습니다. 어리든지 나이가 많든지 티베트 사람들은 이 염주가 모든 생명의 안녕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생명의 안녕을 빈다는 의미로 "옴마니 밧메훔"이라고 말하며 염주를 통해서 기도하지요. 저도 시간이 있을 때마다 "옴마니 밧메훔"이라고 반복적으로 소리내어 염주를 만지며 기도합니다. 제 염주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것이라 매우 오래된 것이예요. 염주는 선물을 하기도 하고 필요한 경우에 시장에서 사기도 합니다. 자연스럽게 문화적으로 염주를 통해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어머니께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기도 했어요. 또 '카닥'이라고 하는 흰색의 얇은 천으로 되어 있는 목에 두르는 것이 있는데 태어날 때, 결혼할 때, 멀리 떠날 때, 죽을 때 등 돌려주곤 합니다. '마니'라고 하는 것은 손으로 잡아 돌리는 물건인데 염주와 같이 무언가를 기원할 때 같이 쓰는 것입니다. 이 모두는 티베트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물건들이예요.



티베트의 인사

티베트 사람들은 처음 사람을 만나면 손을 가슴에 공손이 모으고 '다시델렉' 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좋게 잘 되길 바란다는 의미예요. 또 만났다가 헤어질 때는 안녕히 가세요 라는 의미로 '갈레페아' 라는 말을 하고, 또 안녕히 계세요 라는 의미로 '갈레슈아' 라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티베트의 어린이들과 교육

티베트에서는 만 3세부터 유치원을 다닙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 티베트와의 차이를 더 확실히 느끼는데요, 티베트인들은 난민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체제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저도 그랬듯이 많은 티베트인들이 현재 인도에 머물고 있어요. 유치원이라고 할 수 있는 infant school은 만 3세부터 5살, 그 이후에 junior school 5살-10살, middle school 11살-14살, high school이 15-17세까지 다닙니다. 그 이후에는 대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의무교육 체제는 없고, 각자 원하는 진로대로 선택할 수 있지요. 대학을 가고자 하는 많은 아이들이 외국에서 후원을 받아 학교를 다니고, 대부분 프랑스와 이탈리아에 유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매우 드문 경우라 할 수 있지요.

인도의 남, 북 지역에서 티베트학교를 많이 만들어서 티베트 아이들은 그 지역으로 멀리 떠나 기숙사 생활과 학교생활을 같이 합니다. 저도 이 곳에서 교육을 받았고, 교사로 일하기도 했었는데, TCV(tibet children's village)는 티베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이름입니다. 그 중 "sos tcv" 는 꽤 유명하지요. 보통은 이 TCV에서 3살부터 17살까지 같이 살면서 공부를 합니다.



우리 음식과 옷차림은요

티베트의 음식으로 주로 잘 알려진 것으로는 유명한 버터차가 있고요, 또 '참파' 라는 한국의 미숫가루와 같은 음식을 주로 먹기도 하지요. 참파(Tsampa)는 밀을 물에 불린 다음에 말려서 볶아 모래로 섞어 만든 것입니다. 또 티베트의 만두는 '모모' 라고 부릅니다. 쌀과 양고기를 안에 넣어 밀가루로 빚어 만들었어요.

여자와 남자가 형식은 다르지만 칸차(kanchar), 추바(chuba) 라는 옷을 티베트의 전통의상으로 입고 있습니다. 이 옷을 입는 것은 유목민생활 때문인데요, 예전에는 이런 옷을 평소에도 입었지만, 요새는 한국사람들이 주로 입는 것과 비슷한 현대적 의상을 입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어두운 색은 남자, 밝은 색은 여자가 주로 입습니다.



티베트의 가족과 남과 여

자신의 부모님과 형제, 또 부모님의 형제까지도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의 범위가 넓지요. 예전에는 가족이 많으면 부자라고 여겼는데 그 이유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 많은 노동력을 갖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새는 보통 자식을 2-3명 정도 낳습니다. 티베트가 인구가 적기 때문에 예전에는 결혼하면 아이 많이 낳는 것을 장려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남자는 밖에서 유목생활을 하고, 여자는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집을 관리하는 일을 주로 했지만 현대에 와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현재로 보자면 남녀의 성역할은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는 일이 다른 것은 현대에 와서 사라졌고 교육의 기회도 평등해 졌어요. 또 티베트에는 남아선호사상이 없답니다.



우리에게 의미있는 색깔

티베트인들은 어두움을 상징하는 검정색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두려운 느낌을 갖고 있지요. 보통 어두운 색은 나쁜 운, 밝은 색은 좋은 운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빨강, 노랑, 초록, 파랑, 하얀색은 좋은 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색깔들이 의미하는 것은 하늘(파랑), 바람(흰), 불(빨강), 물(초록), 땅(노란)이고 이는 산과 산 사이를 잇는 연속된 깃발인 '룽따'에서도 표현됩니다. 시험 때 좋은 운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 룽따를 잇기도 합니다.



한국의 좋은 점, 힘든 점

저는 한국에 와서 음악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것이 제일 좋았어요. 또 좋은 친구,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난 것도 한국에서의 행운이지요. 특히 티베트음악과 티베트에 대해 들어주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불편한 점은 한국에서의 난민체제가 좋지 않아 티베트 사람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도 많이 오지 못한다는 점이지요. 한국에서 머물고 싶어도 특기가 없으면 돌아가야 한다는 실정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야크에 대하여

유목생활을 하는 티베트인들은 소와 비슷하게 생긴 야크를 주로 끌고 다니면서 생활하지요. 야크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1,000마리까지도 끌고 다닙니다. 아주 부자라 볼 수 있죠. 보통은 50마리, 100마리 정도 이끌고 다니면서 유목생활을 해요. 간혹 야크의 귀에 빨간색 깃발이 달려 있기도 한데, 주인이 주로 다루거나, 아끼는 야크에게는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한답니다. 또 티베트인들은 오래 살면서 일 안 시키는 야크는 자유롭게 풀어주는 전통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달라이 라마

우리는 달라이 라마를 티베트의 신이라고 여깁니다. 환생을 믿기 때문에 현재의 14대에 이르는 달라이 라마를 모두 인정하고 환생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카르마파' 라는 달라이 라마와 비슷한 존재가 있는데 지금 카르마파는 인도에 있습니다. 또 '펜친라마'는 중국에서 납치해 티베트에서 6살 때 없어졌기 때문에 펜친라마의 전통은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티베트의 축제문화

티베트축제는 'losar' 가 라고 부르는데 아질라모 (ace lhamo)라고 부르는 오페라 축제가 대표적입니다. 춤과 노래가 있는 티베트의 전통 오페라를 같이 공연하고 즐기는 축제이지요. 여름에 주로 열리는데 이 때는 '드리'로 만든 요거트를 많이 먹습니다.